

##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여상진\*

<sup>1</sup>선문대학교 건축학부

### *Hwanghae-Gamsa's Sulryeok and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from the 18<sup>th</sup> Century to the Early 19<sup>th</sup> Century*

Sang-Jin Yeo<sup>1\*</sup>

<sup>1</sup>Division of Architecture,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관련 연구가 부족한 북한지역의 황해도를 대상으로 황해감사의 순력 행정 체계 및 그와 관련된 도내 읍치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19C초에 작성된 현존하는 4종의 황해감영 일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황해감사의 순력 경로 및 주요 읍치와 순력시 유람의 내용을 살폈고, 황해감사의 도입 행로와 도계처 및 교귀처를 밝혔으며, 순력 중에 행한 특징적인 집무를 확인하고, 황주를 중심으로 관찰사 순력 중의 집무 및 행례와 읍치시설을 이용 상황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anghae-Gamsa's* (the local governor of Hanghae-Do) utilization of the governing institutions in *Hanghae-Do* during the *Sulryeok* (an inspection tour around the Gamsa's ruling area). For this purpose, the four *Hanghae-Gamsa's* official diaries were closely investigated, which were written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outes of *Hanghae-Gamsa's Sulryeok* and some sightseeing parts; 2) the arrival route of newly appointed *Hwanghae-Gamsa* and the site of *Gyogwui* (the change-over ritual ceremonies) between old and new *Hwanghae-Gamsas*; and 3)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Hanghae-Do* during the *Sulryeok* focusing on his duties and ritual ceremonies

**Key Words** : *Hanghae-Gamsa, Sulryeok, Gyogwui, Hanghae-Do, Governing Institutions*

### 1. 서론

조선시대 읍치에 대한 연구는 현존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초기의 중요한 몇 연구를 제외하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분석의 주요한 자료가 되는 여러 읍지는 18세기 후반에서 특히 19세기에 편중되어 있고 다수의 읍지가 현존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세하게 묘사된 지도 및 회화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지만 소수의 읍치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 다수의 읍치에 대한 지도류는 간략화된 표현으로 인하여 분석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여러 읍치 중 팔도의 감영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으

로 말미암아 비교적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그 중 북한지역에 소재한 감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고 관찰사의 집무와 도내 읍치시설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등의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일례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온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경상감사 조재호(1702-1762)의 “영영일기”에 이어 이제(1654-1714)와 심이지(1720-1780)의 충청도 감영일기들을 바탕으로 한 최근 성과[1]를 포함하여 하삼도의 관찰사 순력 행로는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북한 지역에 소재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대하여서는 관찰사의 순력 행로조차도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한편 최근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연구의 증가와 사회

이 논문은 2011-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1-0014951)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Yeo(Sun Moon Univ.)

Tel: +82-41-530-2311 email: sjyeo@sunmoon.ac.kr

Received August 29, 2014

Revised September 10, 2014

Accepted September 11, 2014

각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읍지과 지도류에 국한된 기존의 읍지 연구를 그 대상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복원된 제주목관아가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의 “탐라 순력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고 풍부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소재한 황해도도를 대상으로 황해감사의 순력과 관련된 감사의 집무 즉 순력행로와 순력시의 집무 및 행례 그리고 순력시 감사의 도내 읍치시설 이용에 대하여 황해감사가 작성한 일기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황해도 관찰사의 감영일기와 특징

일기류는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관심과 함께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사료이다. 일기류 중에는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가 상당수 현존하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마저 간과되어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지방관 중 관찰사가 작성한 감영일기는 상당수 남아 있고 그 내용도 충실한데 황해도의 경우 아래 Table 1과 같이 총 4종의 일기가 현존하고 있다[2].

[Table 1] The official diaries of *Hwanghae-Gamsa*

Title	Time	Author ( <i>Hwanghae-Gamsa</i> )	Period of the official diaries
<i>Haeseo-Ilgi</i>	the early 18C	Je Lee	September, 1709 ~ July, 1710
<i>Haeyeong-Ilgi</i>	the late 18C	Mae-Su Seo	March, 1795 ~ December, 1796
<i>Haeyeong-Ilgi</i>	the early 19C	Sang-Hwang Lee	October, 1804 ~ June (leap month), 1805
<i>Haeyeong-Ilgi</i>	the early 19C	Ik-Hoe Lee	December, 1828 ~ December, 1830

모두 18C~19C초에 작성된 것으로 기존 연구[2]에서 18C에 감사가 작성한 감영일기가 대폭 증가한다는 지적과 일치한다. 일기의 제목은 “해서일기”와 “해영일기”인데 해서(海西)는 황해도, 해영(海營)은 황해감영을 뜻한다. 이들 일기는 모두 개인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관청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업무일지적 성격의 사환일기(仕宦日記)에 해당한다.

위 일기 중 이상황(1763-1841)의 일기는 체임 및 교귀의 기록이 없어 후반부가 결락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제(1654-1724), 서매수(1731-1818)의 일기는 제수된 날로부터 체임 후 자택으로 돌아가기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익회(1767-1843)의 일기도 제수한 날로부터 임기를 마치고 교귀를 위해 이동하는 중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본고의 고찰 대상인 순력을 포함하여 황해도 관찰사가 행한 업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서매수와 이익회의 일기는 2년간에 걸쳐있어 다른 일기와 비교는 물론이고 부임 첫해와 두 번째 해의 비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위 일기 전체에서는 장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일기 내용 중에 적어 내용 파악이 용이한 점도 장점이다.

서매수의 일기 원본은 미국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Asami Library)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익회의 일기는 국외 유출 자료가 영인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해제에 의하면 원본은 만몽사(滿蒙史)를 전공한 일본인 학자 스기춘(1907-1979)이 소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황해감영 일기들은 모두 날짜 다음에 날씨를 적고 해당 일의 주요 일과를 적은 점은 타 도의 감영일기와 같으나 해당일 기록의 마지막 끝에 풍향까지 적은 점은 타 도의 감영일기와는 다른 황해감영 일기의 특징적인 점이다.

[Table 2] The *Hwanghae-Gamsa's* route of *Sulryeok*

<i>Gamsa</i>	<i>Sulryeok</i>	Period of <i>Sulryeok</i>	Major route of <i>Sulryeok</i>
Je Lee	1st, fall	1709.9.21 - 10.10 (20 days)	Haeju Gamyoung - Onjeong - Pyeongsan - Shingye - Goksan - Sooan - Seoheung - Bongsan - Hwangju - Jeonbang mountain fortress - Jaeryeong - Sincheon - Anak - Jangyeon - Eunyul - Pungcheon - Songhwa - Haeju Gamyoung
	1st, Spring	1795.3.26 - 4.6 (10 days)	Haeju Gamyoung - Geomyeongchang - Munhwa - Sincheon - Jaeryeong - Hwangju - Bongsan - Seoheung - Pyeongsan - Haeju Gamyoung
Mae-Su Seo	2nd, fall	1795.8.4 - 8.12 (9 days)	Haeju Gamyoung - Ongjin - Sogang - Poduwon - Ochajin - Jonijin - The Golden Sands Temple - Jangyeon - Songhwa - Pungcheon - Eunyul - Jangyeon - Anak - Munhwa - Sincheon - Haeju Gamyoung



### 3.2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시 유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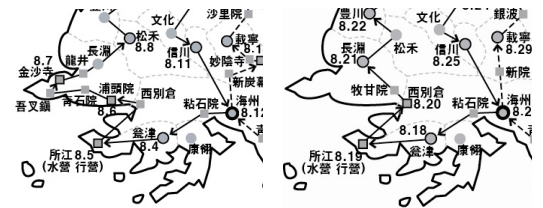
도내 모든 읍을 순력하는 것은 도내 경승처를 유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수령을 규찰하거나 기민(飢民)의 구제, 농형(農形)의 간섭 등의 업무 수행 중에 유람은 어려운 일이지는 하였으나 순력 행로 상에 경승처가 있다면 바쁜 일정 중에 잠시 들러 쉬기도 하였음이 일기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 지방관이 임기 중에 관내의 경승처를 유람한 기록이 상당수 존재한다. 서명응(1716-1787)이 백두산에 오를 때 갑산부사와 삼수부사가 동행한 기록을 ‘백두산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리산에 17번이나 오른 조식(1501-1572)의 ‘두류산 유산록’에는 그가 여러 문도와 함께 지리산에 오른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는 진주목사, 고령군수, 청주목사가 함께 참여한 사실도 볼 수 있다. 정범조(1723-1801)는 영양부사 재직 시에 설악산을 유람하고 유산록을 지었고, 김효원(1532-1590)은 삼척부사 재직 중에 두타산에 오르고 ‘두타산일기’를 남겼다[3].

본 절에서는 고찰 대상 일기에 드러난 황해감사 순력 노정 중의 유람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4].

#### 3.2.1 18C말 황해감사 서매수의 순력 중 유람

서매수는 1795년 3월 부임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비교적 짧은 1차 봄 순력을 행하였다. 그해 가을에 행한 2차 순력에서 순력 행로와 연관된 유람처를 살필 수 있다. 서매수의 2차 순력 노정은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이와 노정이 유사한 그의 4차 가을 순력과 비교(Fig. 3)해 보면 2차 순력에서 유람을 위해 순력의 노정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 3] The comparison of Hwanghae-Gamsa Mae-Su Seo's Sulryeok routes between the 2nd (left) and the 4th (right)

서매수는 1795년 8월 4일 해주감영을 떠나 다음날(8.5) 소강진(所江鎭)에 도착하였다. 당일 세인루(洗劔樓),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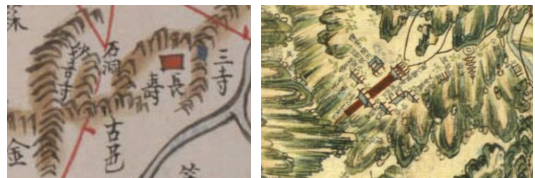


[Fig. 4] The Golden Sands Temple and the Sand dune in Jangyeon[5]

하정(挽震亭)에 올라 석양을 감상한 뒤 배를 타고 성(城) 상의 화조(火操)를 유람하였다. 8월 6일엔 포두원(浦頭院)에 묵은 뒤 청석원, 오차진, 조니진을 지나 8월 7일에 금사사(金沙寺)에 묵었다.

금사사는 해안가의 흰 모래가 금과 같다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장산곶 북쪽에 금사사가 있는데 바닷가가 모두 모래 언덕이다. 모래가 아주 잘고 금빛 같은데, 20리 모래밭이 햇빛에 비쳐 반짝인다. 바람이 불 때 마다 모래가 쌓여 봉우리가 되는데, 높아지기도 했다가 낮아지기도 한다. 조석으로 자리가 옮겨지지만 모래 위에 있는 절만은 모래에 묻히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라 하였다[5]. 서매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금사사와 사봉(沙峰)을 유람한 뒤 용정(龍井)을 거쳐 장연(長淵)으로 이동하였다.

소강진은 수영(水營)의 행영(行營)이 설치된 군사기지로 그의 총 4회의 순력에서 3회를 경유할 정도로 순력시 중요시 했던 곳이다. 4차 순력과 비교해보면 소강진에서 장연에 이르는 노정에서 인근의 경승처인 금사사와 사봉을 유람할 수 있도록 2차 순력의 노정을 계획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Fig. 3 참조).



[Fig. 5] The Jangsu mountain fortress and Myoeum-temple in Jaeryeong (left) [6] and its detail map (right) [7]

황주를 경유하는 황해좌도 순력에서 서매수는 8월 17일 해주영을 떠나 당일 장수산성에 도착하였다. 장수산성은 성 주위가 5,318보인데 이 중 2,615보는 성벽을 쌓지 않을 정도로 험준한 곳이다. 다음날 그는 20리를 가서 인근의 묘음사(妙陰寺)에 들러 법당에 하차하여 점심을 먹고 40리를 더 가서 재령에 도착하였다. 다른 순력 노정들

과 비교해보면 해주에서 재령은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가 장수산성을 경유한 것은 묘음사 유람을 병행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묘음사 일대의 장수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황해금강(黃海金剛)으로 불리며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묘음사현암(妙陰寺懸庵)은 장수산의 층암절벽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동쪽 아래에는 층암절벽 사이로 장수산의 절경인 석동12곡(石洞十二曲)이 있다고 한다(Fig. 5 참조).

**3.2.2 19C초 황해감사 이익회의 순력 중 유람**

이익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좌우도를 구분하지 않고 순력하였는데, 순력 노정이 특히 짧은 1829년 가을 순력에 서매수와 같이 묘음사 유람의 기록이 있다.

9월 3일 감영처를 떠난 이익회는 학현(鶴峴)을 넘어 대자원(大慈院)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일출에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석동(石洞)에 들어 막차(幕次)에 잠시 쉬었다. 이때 재령과 봉산의 기공(妓工)이 차례로 장악(張樂)하고 관무(觀舞)하였다. 이후 말을 타고 20리를 더 가서 묘음사 동구에 이르러 견여(肩輿)로 옮겨 타고 묘음사에 오르면 장수별장이 대기하다가 공장(公狀)을 바쳤다. 묘음사에서는 원통전에 가서 잠시 둘러보고 선방에 하차하였다.



[Fig. 6] The route of Hwanghae-Gamsa Ik-Hoe Lee's the 2nd Sulryeok

재령군수, 봉산현감, 기린찰방이 대동하였고 이후 기록으로 볼 때 봉산군 기공(妓工)도 대동한 유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묘음사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재령군으로 이동하였다. 견여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이나 기공을 대동하는 유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4.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시 행례 및 읍치 시설 이용**

**4.1 관찰사 도계 및 교귀시 행례와 행례처**

하직숙배 후 임지를 향해 출발한 관찰사의 임무는 도의 경계를 들어서면서 시작되므로 이를 도계(到界)라 하

고 도계 후 신규 관찰사가 부신(符信)을 주고 받는 임무 교대의 의례를 교귀(交龜)라 한다. 도계, 교귀 및 감영처로의 도입 과정은 관찰사의 순력과는 무관하지만 많은 인원이 수행하고 도의 경계로부터 감영처로의 이동 중에도 신입 관찰사가 집무하며 격식에 맞춘 의식 또한 행해지므로 본고에서는 순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일기를 대상으로 황해감사 도입과 체임의 행로를 정리한 것이 Table 3이다. 이상황의 일기는 중간에서 끝나므로 체임의 기록이 없으나, 배천에서의 일기 기록이 마지막인 이익회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참조할 때 사조를 마친 후임 관찰사와의 교귀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8], 그 노정은 다른 관찰사의 체임(遞任) 경로와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3] The arrival and departure routes for Gyogwui of Hwanghae-Gamsa

Gamsa	Division	Period	Major routes
Je Lee	Arrival at Gamyoung	1709.9.3 - 9.9	(The Palace) - Goyang - Paju - Jangdan - Gaeseong - Old Geumcheon - Geumcheon - Old Gangeum - Baecheon - Yeonan - Cheongdanwon - Haeju Gamyoung
	Departure for Gyogwui	1710.7.10. - 7.15	Haeju - Cheongdanwon - Yeonan - Baecheon - Old Gangeum - Geumcheon - Old Geumcheon - Gaeseong - Jangdan - Paju - Goyang - Hongjewon - 自宅
Mae-Su Seo	Arrival at Gamyoung	1795.3.14 - 3.22	(The Palace) - Goyang - Paju - Jangdan - Gaeseong - Geumcheon - Baecheon - Yeonan - Cheongdanwon - Haeju Gamyoung
	Departure for Gyogwui	1796.12.17 - 12.22	Haeju - Cheongdanwon - Yeonan - Baecheon - Old Gangeum - Geumcheon - Gaeseong - Jangdan - Paju - Goyang - Gyeonggi Gamyong - The Palace - Home
Sang - Hwang Lee	Arrival at Gamyoung	1804.10.18 - 10.29	(The Palace) - Goyang - Paju - Jangdan - Gaeseong - Cheongseokjin - Geumcheon - Old Gangeum - Baecheon - Yeonan - Cheongdanwon - Haeju Gamyoung
	Departure	-	-
Ik-Hoe Lee	Arrival at Gamyoung	1829.1.12 - 1.24	(The Palace) - Goyang - Paju - Jangdan - Gaeseong - Geumcheon - Old Gangeum - Baecheon - Yeonan - Cheongdanwon - Haeju Gamyoung
	Departure for Gyogwui	1830.12.18 - 12.20	Haeju - Cheongdanwon - Yeonan - Baecheon ...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황해감사의 도입



및 체임 행로는 모두 거의 같은데, 한양으로부터 고양, 파주, 장단, 개성을 지나 도계처는 황해도 금천군이 된다. 이 경로는 사행이 오가던 의주대로에 해당한다. 금천 이후의 행로는 고강읍, 배천, 연안을 거쳐 해주 경내로 들어 청단원을 지나 해주 감영에 이르게 된다. 이를 “대동여지도”에 표현한 것이 Fig. 7이다. 연안에서 해주 감영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이므로 해주 감영에 들기 전날 청단원(靑丹院)에서 하루 숙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의 경우 개성에서 금천(金川) 사이에 고금천(古金川)을 경유한 점이 다른 사례와 구별된다. 금천은 치소의 이동이 빈번했던 곳인데, “해서읍지”에 의하면 효종3년(1652)에 우봉 오조천 남쪽에 관아를 세우고 금천이라 하였는데, 숙종4년(1678)에 오조천의 북쪽 저탄의 남쪽으로 치소를 옮겼다. 그러나 영조29년(1753) 금교의 옛터 즉 오조천 남쪽으로 다시 옮겼다가 정조20년(1796) 다시 오조천의 북쪽 저탄의 남쪽으로 이설하였다.[9] 따라서 이제가 경유한 고금천은 오조천의 남쪽에 해당하며, 서매수가 도입시 경유한 금천에 해당한다.

도계하는 관찰사를 맞이하고 구 관찰사와 교귀하는 기록은 일기에 상세한데 그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침에 떠나 30리를 가서 靑石鎭에 도착하니 당해鎭의 첨사가 路左에 祗迎하고 또 5리를 가서 巳時에 본도(황해도) 경계(금천) 豆石隅에 도착하니 營門 執事가 手旗를 올리고 軍物을 줄지어 늘어섰다. 또 5리를 더 가서 餅屋(站) 炭幕에 下處하니 금천군수가 出待하여 문안 入謁하고 秣馬한 후 떠나서 20리를 더 가서 申時에 金川郡에 도착하니 금천군수, 평산부사, 금교찰방, 청단찰방, 기린찰방이 五里程 公狀을 바치고 衙東軒에 下處하였다. 假都事, 청단찰방과 함께 交龜하니 兵水使 이하 各 邑, 驛, 鎭, 城, 屯官이 到界 公狀을 바쳤다.’

(이상황, “해영일기”, 甲子年(1804) 10월 26일)

관찰사가 도 경계를 이루는 금천군에 들어서자 깃발과 군물을 줄지어 맞이하였고 도계의 행례와 교귀는 금천군의 아동헌에서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찰 대상 일기에서 도입과 체임시의 교귀처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교귀처는 도계처인 금천의 관아 동헌이 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주로 가는 금천 다음의 경유지인 배천의 아동헌이 교귀처로 이용되기도 하였고(서매수 도입), 경로상에 있던 고금천의

주막이 이용되기도 한 점(이제 체임)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교귀의 장소가 일반적인 객사(客舍)가 아니라 관아(官衙) 동헌(東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Table 4] The sites of *Gyogwui* ceremonies between old and new *Hwanghae-Gamsas*

	Je Lee	Mae-Su Seo	Sang - Hwang Lee	Ik-Hoe Lee
Start of Term	Old Geumcheon (-)	Baecheon (local government office)	Geumcheon (local government office)	Geumcheon (local government office)
End of Term	Old Geumcheon (inn)	Geumcheon (local government office)	-	Geumcheon (assu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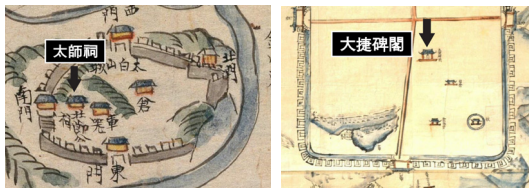
[Fig. 7] The arrival route of newly appointed *Hwanghae-Gamsa*

#### 4.2 순력시 관찰사 집무 및 행례와 행례처

일기의 감사 순력기간 중 기록 내용은 대체로 순력의 경로와 공장(公狀)을 바치기 위해 방문한 수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매일 일기의 말미에 칙소(牒訴)를 처리하였음과 일부 읍치에서는 개좌(開坐)하여 일을 처리하였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창고 등의 기록을 잘못된 별장(別將)을 벌(서매수, “해영일기”, 1795.8.17, 8.24)하는 등 농형과 재해의 간섭 이외에 각종 공무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감사 순력 시에 행한 집무 중 몇 가지 특기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국가시설의 봉심(奉審)이다. 서매수는 1796년(정조20) 9월 5일 가을 순력시 평산부 태백산성에 올라 평산부사와 함께 삼태사사(三太師祠)를 참배(瞻拜)하고 전교와 어제(御製) 제문 현판을 봉심하고 높여 걸었다. 고려 건국에 공로가 큰 신승겸과 유급필은 황해도 평산 출신이어서 고을인들이 태백산에 사당을 세우고 추모하여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조가 이를 삼태사사(三太師

祠, 후에 太師祠)라 사액하고 치제하도록 명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 1796년 8월 4일) 이익회 역시 사신 지대를 위해 평산에 머무는 동안 태백산성에 올라 태사사에 참배 봉심하였다.(1830.10.20) 한편 이익회는 순력시에 황주(1829.3.7), 신계(1829.3.3, 1830.3.6), 연안(1830.3.4, 12.20)의 비각을 봉심하였다. 신계의 비각은 태봉 비각이며, 연안의 비각은 임진왜란 당시 초토사 이정암이 의병을 이끌고 연안성에서 왜군을 물리친 연안대첩을 기념한 대첩비각(大捷碑閣)이다.



[Fig. 8] The Taesa shrine (left) [10] and the Yeonan Great Victory monument (right) [7]

다음으로는 서원의 알성과 봉심이다. 조선중기 이래 향촌사회의 여론이 지방 유림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순력시 향교와 서원을 방문하여 유생들을 격려하였다. 황해감사 순력시에 방문한 서원은 감영처 해주 경내의 소현서원(석담서원)과 문헌서원이다. 이제는 순력 후 해주로 돌아오는 길에 석담서원에서 하루를 묵었고 다음날에는 문헌서원에 들러 알묘(謁廟)하였다.(1710.10.9, 10.10) 이제는 도입시에 경유한 금천, 배천, 수안 읍치에서도 반드시 향교에 들러 알성과 간심을 한 바 있다.(1709.9.7, 9.8) 서매수도 부임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행한 1차 순력에서 감영을 떠나 석담의 소현서원에 들러 친히 분향하고 봉심하는 것으로 순력 노정을 시작하였다.(1795.3.26) 이익회 역시 봄 순력마다 송화와 검영창을 지나 해주 감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현서원과 문헌서원을 들러 분향하고 봉심하였다.(1829.3.16, 1830.3.18) 소현서원은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로 율곡 이이가 낙향하여 청계당과 운병정사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던 곳에 세운 서원이다. 사당 담장 바깥쪽에 청계당과 요급정이 있으며 이제는 요급정에 이익회는 청계당에도 들렀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각 감영일기에서 순력시 무엇보다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유생백일장과 무시사(武試射)의 실행이다. 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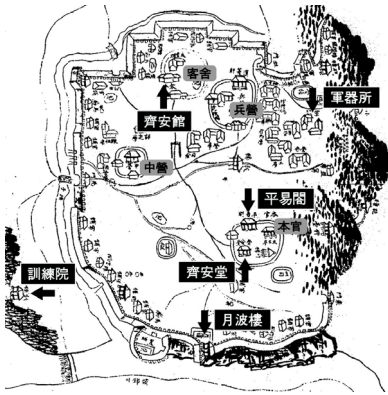
본래 시취(試取)는 관찰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조

선전기 이래 향시, 공도회 등의 시험을 관찰사가 주관하였고 무과의 향시와 선무군관도시 등도 주관하였다[11]. 한편 백일장은 과거(科擧)와는 달리 관리 임용과는 무관하게 학업장려와 지방 유생들의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지방 관청 수령의 주재 하에 널리 시행된 것이다. 황해감사 역시 감영처 해주에서도 유생과 무사의 백일장을 실시하였지만(서매수 1795.4.17, 9.29, 1796.4.12, 9.2), Table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순력 중 일부 읍치에서도 백일장과 무시사를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참서관으로 지정된 인접 수령 및 찰방, 병마우후 등이 모였고, 끝난 뒤에는 방방(放榜)한 뒤 합격자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나누어 주었다.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백일장은 감사가 직접 주관하였지만 무시사는 개장(開場)만 한 뒤 비장을 보내 대행케 하기도 하였다.

[Table 5] The local cities in which the Confucian scholars' writing contests held during the Sulryeok of Hwanghae-Gamsa

Gamsa	Sul-ryeok	Local Cities in which the Confucian scholars' writing contests held
Je Lee	1st, fall	Goksan(1709.9.25.), Seoheung(9.28), Hwangju(10.1), Anak(10.5)
	1st, Spring	Hwangju(1795.4.1)
Mae-Su Seo	2nd, fall	Hwangju(1795.8.20)
	3rd, Spring	Anak(1796.3.18), Hwangju(3.22), Goksan(3.27)
	4th, fall	Hwangju(1796.9.2)
Ik-Hoe Lee	1st, Spring	Anak(1829.3.12)
	3rd, Spring	Hwanggang(Hwangju)(1830.3.12)

순력시 유생백일장과 무시사가 시행된 읍치는 안악, 곡산, 황주 등으로 특히 황주는 감사 순력시마다 거의 매번 백일장과 무시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매수의 일기에는 일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황주의 경우 유생백일장은 월파루(月波樓)(1795.4.1)와 객사동헌(1796.3.22), 무사백일장은 군기소(軍器所)(1795.4.1), 무시사(武試射)는 훈련원(訓練院)(1796.3.22)에서 행하였고, 유생백일장의 시상과 연회의 장소로는 제안당(齊安堂)(1795.4.1, 1796.3.22)이 이용되었다. 제안당은 황주 객사인 제안관(齊安館)과는 다른 건물로 읍지에 ‘관아 남쪽에 있는 외동헌(外東軒)’으로 설명되어 있다. 황주의 관아 동헌은 평이합(平易閣)이다(Fig. 9 참조)



[Fig. 9] The map of Hwangju [12]

전술한 바와 같이 황주는 황해좌도의 중심으로 병영이 설치된 곳이다. 따라서 관찰사의 순력이 황주에 이르면 타 읍치에 비해 화려한 행례를 행하였음을 아래 일기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점심 후 떠나 40리를 가서 黃州牧에 도착하였다. 병마절도사, 병마우후, 황주목사, 수안군수, 선적첨사, 정방별장이 五里程 公狀을 바치고 병마우후가 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 作 軍門하고 出待하여 吶喊(군사가 일제히 고함을 지름)하기를 세 차례하였다. 轅門을 열라는 명령을 전하고 말을 타고 행차하니 병마우후, 수안군수, 선적첨사, 정방별장이 郊外에서 遠望 祇迎하고 인하여 前導하여 館所에 가니, 병마절도사가 內庭에서 毋소 祇迎하니 回班 答揖하고, 병마우후, 수안군수, 선적첨사, 정방별장이 門外에서 毋소 祇迎하였다. (館所) 甓大廳 東壁에서 西向하여 서서 절도사, 병마우후, 수안군수, 선적첨사, 정방별장의 영명례를 親受하고, 병마절도사가 西階로 말미암아 올라 問上禮를 행한 후에, 南向하여 交倚에坐하니 절도사 이하가 公私禮를 행하였다.’

(서매수, “해영일기”, 乙卯年(1795) 3월 29일)

‘일출에 떠나 40리를 가서 황강현(황주)에 도착하니 병마절도사, 우후, 황강현감, 정방별장이 五里程 公狀을 바쳤다. 우후가 甲冑를 갖추고 大旗幟를 거느리고 結陣하여 待候하였다. 陣을 풀라 分付하고 곧바로 西門外 碑閣으로 가서 奉審한 후에 館所로 가서 戎服으로 갈아입고 병마절도사의 영명례를 親受하였고 問上禮를 행한 뒤 公私禮는 除하고 齊安堂에 가서 下處하였다.’

(이익희, “해영일기”, 乙丑年(1829) 3월 7일)

위 기록을 통해 황해감사의 순력이 황주에 이르면 병마절도사, 병마우후를 비롯한 제 장(將)이 갑주를 갖추어 입고 대기치를 거느리고 결진하여 마중을 나오며, 이후 황주의 객사로 가서 관찰사가 절도사의 영명례를 친히 받고 문상례와 공사례를 행하는 행례의 세부를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 군병이 동원된 성대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은 신임 관찰사 도임시에 감영처 해주에서 중군이 행하는 행례(서매수 1975.3.22)에 비견되며 그 이외 여타의 읍치에서는 살필 수 없는 것으로 황주의 객사 제안관(齊安館)이 이러한 행례의 실행 장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됨을 파악할 수 있다.



[Fig. 11] The Hwangju Jeankwan (left) [7] and its center building (middle, right) [13]

한편 서매수는 앞서 언급한 객사에서의 행례가 끝난 뒤 동헌에 가서 개좌하였는데, 이때 좌기례의 예수(禮數)를 병마우후와 선적첨사, 정방별장이 실례(失禮)하자 우후의 영리에게 곤장을 가하고 선적첨사와 정방별장은 나입(拿入)하여 죄를 물은 뒤 나출(拿出)하였다.(서매수 1795.3.29) 또한 서매수의 마지막 가을 순력에서 황주에 이르렀을 때 병마절도사 김사목은 자신이 서매수 직전의 전임 황해감사였음을 내세워 영명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찰사의 체모를 김사목이 손상시킨 죄를 묘당에 묻는 장계를 서매수가 올리고 있는 점(서매수 1796.9.2) 등은 관찰사가 행하는 행례의 중요성과 이로 인해 부여받는 통치적 권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북한지역 소재 황해도를 대상으로 황해감사의 순력행정 체제 및 그와 관련된 도내 읍치시설의 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19C초에 작성된 현존하는 4종의 황해감영 일기를 분석하였으며 순력과 연관성이 있는 도임 행로와 교귀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파악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해감사의 봄 가을로 시행된 순력은 대체로 2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감영쳐 해주를 출발하여 한번에 일순하기도 하고 좌우도로 나누어 연달아 2번에 걸쳐 순력하기도 하였다. 그 행로는 지도와 함께 본문에 밝힌 바와 같으며 대체로 거의 모든 읍치가 순력의 대상이 되었지만 특히 병영이 설치된 황해좌도의 중심 황주는 감사 순력시 반드시 경유하는 주요한 읍치였다.

행로 상에 경승처가 있으면 순력의 노정과 일정을 다소 조정하여 유람을 행하기도 하였던 바 대체로 두 번째 가을 순력에서 행해지며 수영(水營)의 행영이 설치된 소강진 순력시 금사사(金沙寺)와 사봉(沙峰)을, 해주에서 황주로 가는 길목의 재령에 들기 전 장수산성의 묘음사(妙陰寺)가 주요 유람처가 되었다.

황해감사의 도입 및 체임 행로는 의주대로를 이용하여 도계치는 금천이 되며 이후 고강읍, 배천, 연안을 거쳐 해주영에 들게 되는데, 연안에서 해주는 매우 먼 거리이므로 감영에 들기 전 청단원에서 하루를 묵는 것이 통례였다. 신구 감사의 교귀치는 도계처인 금천의 관아 동헌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다음 경유지인 배천의 아동현과 경우에 따라 고금천의 주막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황해감사가 순력 중에 행한 업무는 농형, 재해의 간심 및 일상적 공무 이외에 비감 등 국가시설의 봉심, 소헌서원 등 서원의 알성과 봉심, 그리고 유생백일장과 무시사(武試射)의 시행 등이다. 황주는 감사 순력시마다 백일장과 무시사가 행해졌으며 황주 읍치시설 중 훈련원은 무시사로 외동현인 제안당(齊安堂)은 백일장의 시상과 연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한편 감사 순력이 황주에 이를 때에는 병마사, 병마우후 및 제 장(將)이 갑주와 대기치를 갖추고 결진(結陣)하여 맞이하는 등 성대한 의식이 행해지며 황주 객사 제안관(齊安館)은 병마사의 영명례를 관찰사가 친히 받는 행례 설행의 장소로 중요하게 파악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현재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읍치와 관찰사의 통치행정과 관련된 읍치시설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1] Sang-Jin Yeo, The *Chungcheong-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18th Century -Focused on *Kyogwi, Sulryeok* and Ritual Ceremon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9, No.1, pp.143-153, 2008. 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08.9.1.143>

- [2] Sang-Jin Yeo, An Elementary Analysis of Local Governors' Diaries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Official Facilities of Local cities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7, pp.2676-2686, 2010. 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0.11.7.2676>
- [3] Kyung-Ho Shim, "*Sannun Kihaeng*", Igaseo, 2007.
- [4] Sang-Jin Yeo, The *Hwanghae-Gamsa's* Sightseeing during the *Sulryeok*, 2014 Spring Conference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 pp.125-127, 2014. 5.
- [5] Jung-Hwan Lee, Translated by Kung-Jin Heo, "*Taek-Lee-Ji*", Hanyang Publisher, 1996, pp.59.
- [7] "The Map of Province in 1872"
- [6] "The *Dong-yeo* Map" (Gyu 10340)
- [8] "The official diary of *Sungjungwon*" (12.18.1830)
- [9] "*Haeseo-Eupji*" (Gyu 12171)
- [10] "*Ji-Seung*" (Gyu 15423)
- [11] Hee-Kwon Lee, "A Study of Local Buling Administration in Later Choson", Jip-Moon-Dang, 1999., pp.54-56
- [12] "*Yeojidoseo*" (photographic edi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73.
- [13] "*Joseon-Gojeok-Dobo*" vol.11,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1916.

##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문화계